



다독다독

펴낸곳 : 정읍고등학교도서관
 펴낸이 : 정읍고등학교 이석준
 주 간 : 정읍고등학교 이무산
 편 집 : 사서교사 기민진
 펴낸일 : 2018년 12월 27일(목)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사로 594 정읍고도서관

정읍고등학교 도서관 소식지 2018년 겨울호



- ★ 방학기간 동안 대출권수가 기존과 동일하게 5권입니다. 반납일은 개학일 1월 28일입니다.
- ★ 겨울 보충 기간은 점심시간 도서관을 개방합니다. 2월은 도서관 점검으로 휴관합니다.
- ★ 나머지 기간은 지역사회 도서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별 책읽기 우수자

	학번	이름	점수	시상
1	2211	서단오	100	금
1	2303	김민중	100	금
1	2306	김주형	100	금
1	2326	한자연	100	금
5	1123	채정빈	80	은
6	2121	이정진	60	은
7	1304	김이삭	50	은
7	2310	김호현	50	은
9	1406	김정운	40	동
9	2203	김도균	40	동
9	2210	박정환	40	동
9	2216	안영훈	40	동
9	2226	홍윤표	40	동
14	1104	김시우	30	동
14	2201	고영주	30	동
14	2220	이정원	30	동
14	2223	진민찬	30	동
14	2225	허진	30	동

2학기 다독자 시상

	학번	이름	합산점수	시상
1	2211	서단오	204	금
2	2303	김민중	146	금
3	2306	김주형	135	금
4	2326	한자연	122	금
5	2202	권승범	116	은
6	2104	김도영	110	은
7	2203	김도균	110	은
8	1304	김이삭	108	은
9	2421	이민수	93	은
10	2121	이정진	90	은
10	2210	박정환	90	은
12	1123	채정빈	80	동
12	2108	김한결	80	동
12	2126	홍재범	80	동
12	2213	안대현	80	동
16	2127	박현민	74	동
17	2101	강주광	71	동
18	2205	김명원	70	동
18	2404	김승빈	70	동
18	2418	이도영	70	동
21	2201	고영주	69	동
22	2226	홍윤표	66	동
23	2217	양홍조	65	동
24	2102	고영웅	64	동
25	2225	허진	61	동



《《영화 읽기 책 그리기》》

소설과 영화는 애초에 다른 영역이다. 소설이 영화가 되기도 하고, 영화가 소설이 되기도 한다. 방학 중 여유 시간을 가지고 영화와 소설을 비교해가면서 읽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편 소개해봅니다. 즐거운 방학 보내세요~

- 사서교사 기민진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비라 오코너 지음 | 신선애 옮김 | 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 이레, 이지현 외 출연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안녕, 헤이즐>
존 그린 지음 | 김지현 옮김 | 북폴리오 조쉬 본 감독 | 세일린 우들리, 안셀 엘 고트 외 출연 | 미국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전미 학부모들이 선정하는 Parent's Choice 골드 어워드와 전미 도서관 협회가 선정하는 ALA 노터블 어워드, 메사추세츠 북 어워드를 수상한 바바라 오코너의 대표적인 성장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이 소설의 내용을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각색한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가난과 가족의 붕괴 앞에 선 열한 살 소녀가 옷이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결코 우울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으며 따뜻하게 그려지는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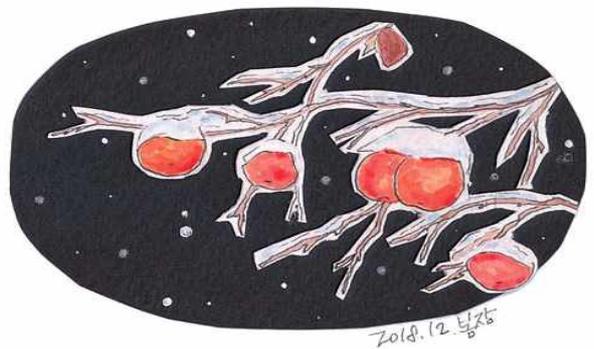
영화 <안녕, 헤이즐>(2014)은 전미 박스오피스 1위에 빛나는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The Fault in Our Stars)』를 원작으로 했습니다. <안녕, 헤이즐> 속 두 남녀 주인공은 시한부를 선고받은 암투병 환자들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십대 소년 소녀의 가슴 아픈 사랑과 우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일지도 모르는 소재를, 단맛과 짠맛이 가미된 거짓 미사여구나 감동을 주기 위한 기승전결의 자극적인 픽션으로 그리기보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보는) 이로서 하여금 더 많은 여운과 감동을 남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년이 온다』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한강 지음 | 창비 김지훈 감독 | 김성경, 안성기 외 출연 정훈 감독 | 송강호, 토마스 크레케만 외 출연

한국의 봄은 유독 아픔입니다. 그것이 그냥 봄이라서가 아니라 4.3제주를 거치고 4.19를 거치고 5.18을 거치고 서울의 봄을 거치고 검은 바닷속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개나리 대신 노란 리본을 다렉 하여 온 봄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봄은 그냥 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하여 오는 아픔의 봄입니다. 봄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람이 차가운 것이 혹시 그런 아픈 역사를 힘겹게 거쳐 오는 봄이기에 그런 것인가 생각하며 오월의 광주를 생각해 봅니다.

첫눈



열두달걸어오시는가 수고한
강산에게게부디,
첫눈이다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 학교도서관저널 발췌

-중고등 아침독서 135호 발췌